

“전주 ‘조선월드 파크’ 동양의 밀라노로 조성”

정동영 예비후보, 총선 1호 공약 발표

정동영 21대 총선 전주(병) 예비후보가 “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의 밀라노 구상은 조선의원시절부터 구상하고 외쳐왔던 전주의 미래 발전 방안이다”며, “전주를 단순히 하루 보고 가는 관광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이 체류형 관광지,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과거 5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4대문 복원 ▲조선왕들의 27개 역사관을 담은 조선문화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벨리를 조성 등 5가지 핵심 사업이다.

서울의 조선 문화유적은 임진왜란 이후 증건된 근세 유적이지만 전주는 조선 초기 역사 유적과 건지산 조경단, 덕진공원 언뜻, 경기전, 전주사

고, 객사, 전라감영, 오목대, 용비어천가의 육룡 개국 신화의 배경이 되는 시조촌 자비마을 등 임진왜란 이후에도 문화유적이 온전히 보존돼 있는 ‘조선의 아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정동영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전주는 하루 밤을 묵고 갈 콘텐츠, 밤에 즐길 역사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그간 전주는 무한한 전통문화 콘텐츠와 역사문화 유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기술혁명으로 담아내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관광 혁신을 정동영이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조선의 분향을 한류의 본거지로 만들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주 위상이 정립된다. 또한 전주가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해 지역 일자리와 지역주민 소득도 대폭 증가하는 등 전주경제와 전북경제는 성장동력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

봤다. 1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국가거점관광도시 예산 1300억원(국비 500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600억원) ▲법인인전 자리에 들어설 한류박물관 조성 예산 400억원 ▲덕진언못 준설 생태공원화 예산 250억원 ▲우아동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센터 운영 예산 60억원 등 2,000억원이다.

이에 더해 사업진행 단계별 다년간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투입, 민간투자 유치 등 조선문화의 본산으로 위상을 높일 경우 충분히 사업비 마련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주의 조선 초기 역사유적지 및 조선문화 원형 재현으로 관광자원을 만들고 전주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 발전시켜, 한옥마을과 덕진언못에 들렀다 돌아가는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체류형 관광지, 체험형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전주경제와 전북경제의 성장 불씨를 정동영이 살려내겠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정동영 예비후보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비례대표 제명시 의원직 박탈 등 처벌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조항 신설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명을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발행한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보고서를 통해 제명당한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

직 박탈 등 처벌 조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해당 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사실상 의원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당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 원리로 채택돼 있는 정당국가 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의원 탈·복당 및 당적변경은 총 174건(탈당 97건, 복당 87건, 당적변경 9건)에 이른다. /뉴스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이강래, 민주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예비후보가 전북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전북도당 선대위는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150명 규모의 필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되었으며, 이강래 예비후보는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함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돼 전북선거를 총괄·지휘하게 됐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더불어 민주당이 1당의 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선거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꼭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원팀으로 묶어 본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국정공약 2호

‘농자 천하지대본’ 편 발표

무소속 남원·임실·순창 4.15 총선 예비후보인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주 국정공약 1호로 ‘민생 살리기’ 편에 이어 국정공약 제2호로 ‘농자천하지대본’ 편을 발표했다.

이용호 의원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촌현실을 개선하고 농민이 실질적으로 대우받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이 후보의 국정공약 제2호 ‘농자천하지대본’ 편은 ▲농민수당 현실화 및 법제화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및 예산 확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 보상 수준 현실화 등이다. /특별취재반



임정엽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 등 지방에 숨결 불어 넣을 것

임정엽 완주군 국회의원이 예비후보가 대표공약을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17일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과 ▲출산부터 대학까지 정부책임교육,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에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북예산 10조원 견인’에 이은 2탄으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인 셈이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장애인의 평생 소원 ‘교육·자립’ 이뤄낼 것”

‘평생교육 시설 설치’... 민주 김윤덕 예비후보, 장애인 맞춤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전주갑)가 17일 SNS를 통해 ‘장애인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김윤덕 예비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다수 장애인의 소원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 받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자립’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체 국민의 1/3

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 0.02%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의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가운데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차량지원을 위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설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교원 확충 △장애유형별 맞춤식 프로그램 △학력인정 학습보완교육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평생학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확충 및 무료급식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넓힐 것”이라며 “장애인가족의 한숨을 덜어내고, 장애인들의 평생소원 ‘교육과 자립’의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민주 전북도당 “탈당·무소속 후보 총선 후 복당 불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천 불복 후 무소속이나 탈당 소속으로 총선 승리 후 민주당에 복당 또는 입당하겠다는 전략적 선거 운동에 불허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당 공천 과정에서 결과가 승복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들에 대해 영구제명 방침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현재 무소속 후보 역시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 민주당에 입당을 제한하겠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최근 호남지역에서 타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이 당선 후 민주당에 복당할 계획을 시사하면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허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전북도내 선거구는 군산시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실제로 최근 군산지역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면서 민주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낮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민주당 중앙당의 이 같은 방

침은 최근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아지고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선거에 이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침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도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른 당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민주당의 덕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품수 정치행태”라며 “이는 구태에 머물러 있는 정치 적폐이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골프트로피·상패제작전문 국제로타리용품 대리점

광고사업부

트로피/상패/명패
실사현수막/각종깃발
팸플릿/리플릿/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판촉용품
단체복/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